

인터넷 세계를 정복한다

다음주중 전교생 인터넷 ID 무료제공
인터넷 열린학교 시범운영

우리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 다음주 중 전산소는 재학생 전체를 대상 일괄적으로 인터넷 ID를 무료 배부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ID는 교내 서버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 ID를 사용,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무료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3월말을 예상으로 하고 있었던 이번 ID제공시기는 사전 준비 관계로 다소 지연된 것이다.

인터넷에서 <http://cvs1.kyunghee.ac.kr/>로 들어가면 받아볼 수 있는 초기화면(사진 참조)에서는 COMIC CHAT, COOL LINKS, DISPLAY ROOM, TELNET, OUR FTP-SITE, POST OFFICE 이상 6개의 메뉴를 마련해 놓고 있어 현재 학생들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받아보는 것까지 서비스들을 무료로 받아보게 된다. 또한 이 서비스는 기존에 있던 학교 홈페이지와는 또 달라 학생들의 편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강신청, 도서검색 가능 제공되는 각 메뉴의 특징을 살펴보면 'COMIC CHAT'은 3차원인터넷 채팅이다. 개인의 부호 및 별명을 지정, 입체적 채팅을 해내 채팅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Web관리자가 새로운 사이트를 소개하는 자리인 'COOL LINKS'에서는 추천 사이트를 받는 동시에 새로운 사이트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기존의 게시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DISPLAY ROOM'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적 공고사항을 게재, 삭제할 수 있는데 이 때 필요한 E-mail의 주소는 재학생 각자의 학번이 된다. 또한 'TELNET'에서는 수강신청 및 도서검색 등을 할 수 있어 그간 학생들 불편사항이었던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이 화일을 등록, 공개자료실 역할을 할 'OUR FTP-SITE'에는 각종 논문 및 과제를 화일로 등록시킬 수 있으나 이 메뉴의 경우 등록시 운영자가 화일을 검색, 추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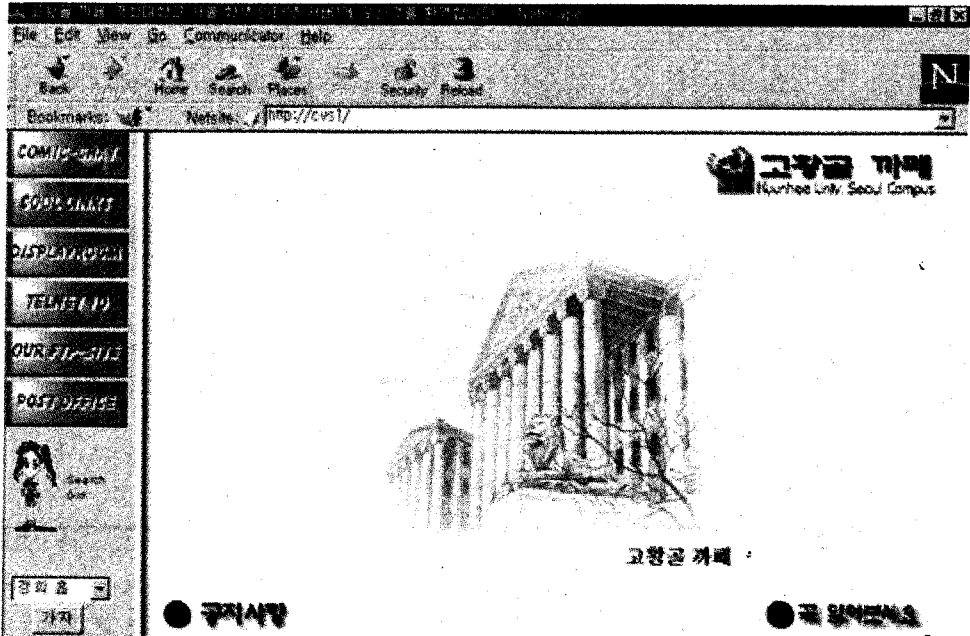
이 외에 외부 ID없이 학내에서 외부까지 mail을 보낼 수 있는 'POST OFFICE'도 제공되는 서비스의 하나이다. 학생 참여를 확보코자 개인 홈페이지 개설도 가능토록 한 이번 서비스는 이번 주 내에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캠퍼스 전자계산소는 '인터넷 열린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가 선정한 20개 대학에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교육부가 지원한 5천만원 상당의 기자재(워크스테이션 1대, PC 10대)와 LG연암재단에서 기증한 PC 10대로 운영하게 되며 중앙도서관 2층 제3열람실에서 4월 중 문을 열 계획이다. 이에 전산소장 김상국(산업공) 교수는 "도난방지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내장형 PC 책상을 특수제작 했다"며 "학생들은 물론 지역사회와 인터넷 연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40개 LAN 포트 설치

또한 전산소는 학생들이 구입한 노트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 1층 제1열람실에 40개 LAN 포트를 설치했다. 사용시간은 일반열람실 이용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1까지)과 동일하며 LAN 카드와 LAN 연결선은 사용자가 구입해야 한다. 이 LAN 포트를 사용하면 전 화세 부담없이 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내전산망 이용도 가능하다.

(김남이 최진원 기자)



▲무료 인터넷 사용의 기회를 제공해 준 전산소 서버 메일 초기화면

전학대회 출석을 50% 미만 97학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인준

'97학년도 정기 전학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지난 27일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예상보다 한시간 가량 늦게 시작된 이번 전학대회에는 대의원 총 2백38명 중 1백8명만이 참가해 저조한 참석율을 보였다. 성원보고, 개회사, 애국의례, 총학생회장 인사 순으로 진행된 1부 순서에서 박정운 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의 결의의지를 표명했으며 곧 이어진 2부 본회의는 서기단 선출 및 임명, 회계통과, 안건토의, 서기록 확인, 결의문 채택,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기단 선출에서는 우선택 국문과 학생회장이 서기단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총 6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시작된 '안전토의' 순서에서는 9대 인권복지위원회(인복위)위원장 선거를 통해 심재호 전 인복위 부위원장을 신임 인복위원장에 임명하였다. 그 외에도 97학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인준에 관해 작년 사업을 평가하는 한편 97학

년도 사업의 방향과 대중운동, 일상사업의 내역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산내역에 있어서 예상 수입내역은 자치회비 4천5백47만5천원과 교비지원액 9천만원으로 총 1억3천5백47만5천원이며 예산내역의 액수 또한 이와 같다. 기타 29대 중앙집행국, 학원 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 사무국장, 예산심사위원장, 교육과정심의위원장, 졸업준비위원장 인준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96학번중 CRS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치뤄지는 이번시험의 대상인원은 천명이며 접수는 4월 중순까지 받는다.(단 95학번은 학점만 이수하면 졸업 가능하며 학제일은 97년부터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과목은 영어와 컴퓨터이고 영어는 영어작문 I·II 수준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 컴퓨터는 전산학 입문 퍼스컴 응용 수준에서 출제될 예정이다.

5월초 CRS 인증시험

정보화와 세계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9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CRS제도에 대한 인증시험이 5월 초순 처음 실시된다. 96학번중 CRS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치뤄지는 이번시험의 대상인원은 천명이며 접수는 4월 중순까지 받는다.(단 95학번은 학점만 이수하면 졸업 가능하며 학제일은 97년부터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과목은 영어와 컴퓨터이고 영어는 영어작문 I·II 수준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 컴퓨터는 전산학 입문 퍼스컴 응용 수준에서 출제될 예정이다.

언교연 첫한국어 강좌

수원캠퍼스 언어교육연구원(원장: 이숙자 교수)은 내일 제1차 한국어 강좌를 개강한다. 경기·수원지역에서 최초로 개설되는 이번 정규강좌는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외국어대 408호실에서 실시하며 이석만, 이화형 강사가 강의한다.

대학주보 뉴스서비스

천안캠퍼스: GO KHU 31
하이캠퍼스: GO KHU 10
인터넷: <http://news.kyunghee.ac.kr>

제8회 시문에 현상 공모전

양캠퍼스 재학생 대상...4월25일 마감
당선작 1편, 가작 2편, 입선작 2편

대학주보사는 우리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8회 시문에 현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문단을 이끌어 온 경희문단의 오늘을 가늠할 수 있는 공모전에 재학생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출품지역: 양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공모부문: 시
- ▲작품접수: 1997년 4월 1일~4월 25일
- ▲접수처: 대학주보사 편집실(서울: 961-0095, 수원: 280-2056)
- ▲입상작 발표: 1997년 5월 12일자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발표함
- ▲시상내용: 당선작 1편-상금 1백만원, 상패
가작 2편-상금 30만원, 상패
입선작 2편-상금 15만원, 상패
- ▲기타: 모든 입상작품은 대학주보에 귀속됨
시상식, 낙선작 반환에 관한 사항은 입상작 발표시 알릴 예정입니다

대/학/주/보/사

교시 탐

손바닥도 마주쳐야

▼한 손을 펴면 손등은 아래로 향하게 된다. 반대로 하면 손바닥이 아래로 향한다. 이렇듯 한 손의 손등과 손바닥은 서로 마주볼 수 없다. 고집을 펴워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손등과 손바닥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다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렇듯 빨리 한계를 파악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8일 97학년도 총학생회 요구안을 학교측에 상정하였다. 총 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이번 요구안의 내용 중 학부제 도입과 관련, 일부 학과에 인원이 편중된 문제를 공감을 형성함으로써 해결하고자 총학생회는 1998년 말에 완공예정일로 하고 있는 종합강의동의 조속 건립을 요구했다. 현재 언론정보학부의 경우 복수전공자가 대거 몰려 전공필수과목의 경우 40명 정원의 강의실에 백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여 바닥에 신문과 깔고 앉아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강의실 부족문제에 대해 정재범(신방 4)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학부제 도입과 관련 전과 및 복수전공의 기회가 대폭 확대되다 보니 일부 학과에 학생들이 편

중되어 더이상 학생을 수용할 공간이 없는 실정에서 학생 편의를 위해서라도 종합강의동의 완공은 시급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기철 건설팀장은 총학생회 요구대로 학내시설을 완비하는 것도 좋지만 종합강의동의 경우 그 규모가 광대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총학생회측 요구대로 최대한 완공일을 단축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학부제는 그 시행 초부터 많은 논란이 일었고, 우려한대로 공간부족이라는 문제가 노출되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종합강의동의 건립이 확정되었지만 조지원은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학생회측은 실현 불가능한 요구안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손등'과 '손바닥'이기 때문이다. 이때 반대로 손을 이용하면 쉽게 손등과 손바닥은 만날 수 있다. 공간부족에 대해 수업이 비교적 적은 대학원강의실을 활용하는등 종합강의동의 완공까지 내구책을 최대한 끌어내는 다른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할 것이다.

(김동혁 기자)

무엇으로 채울까?



대학주보에서 나만의 끼를 펼쳐보세요.
46기 수습기자 모집이 내일 마감됩니다.

모집부문: 취재 편집부, 사진부, 컷(만화)
지원지역: 우리학교 1학년생(97학번)
선발일정: 원서접수 마감
· 서울캠퍼스 4월 1일까지
· 수원캠퍼스 4월 2일까지

진지한 시각
순수한 열정
대학주보에서
만들어 갑니다.

대 학 주 보 사

961-0095(서울)/0331)280-2056(수원)